

일본군‘위안부’ 문학과 교차하는 한국계 미국문학*

— 『하얀국화』를 중심으로

장 수 희**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4. 일본군‘위안부’가 된/되지 않은 이 |
| 2. 두 세계의 교차적 배치 | 야기 |
| 3. 일본군‘위안부’ 이야기와 4.3 이야기 | 5. 지워지는 책임의 서사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매리 린 브락트의 『하얀국화』를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문학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한국계 미국문학 속 일본군‘위안부’ 서사들에 대해 개괄하는데,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일본군‘위안부’ 문학은 ‘증언 이후’라는 역사적 사건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일제 식민주의의 피해라는 역사와 접속함으로써 한국계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4-C02).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미국인의 입장에서 감각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서사화하며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교차적 형식 설정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 논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소송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교차적 형식이 불러오는 효과와 그 의미에 대해 지적한다. 3장에서는 『하얀국화』가 다루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이야기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해방 후 4.3 이야기가 재현되는 방식에 대해 논하며 소설 속에서 미국의 책임이 가려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4장에서는 일본군‘위안부’로 전장터로 끌려가게 된 여성들의 이야기와 그것을 목격하고 남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병치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5장에서는 이 연구는 미국문학이 생산되는 토양 속에서 한국계 미국문학이 한국사, 식민지 시기 한국의 민족적 피해, 젠더적 피해를 다루는 가운데 한국 현대사 속 미국의 책임이 서사적으로 어떻게 가려지고 있는지를 지적한다.

주제어: 일본군‘위안부’, 제주 4.3, 일본군‘위안부’ 서사, 하얀국화, 한국계 미국문학, 매리 린 브락트, 냉전, 교차적 서사 구조, 번역과 권력, 트랜스내셔널

1. 들어가며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을 시작으로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은 한국뿐 아니라 영미권의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테레즈 박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천황의 선물(A Gift of the Emperor)』(1997)을 발표하고, 노라 옥자 켈러는 1993년 하와이에서 열린 황금자의 증언을 듣고 『중군위안부』(1997)를 발표했다. 또, 이창래

는 일본군‘위안부’ 모집자의 증언이 실린 책을 읽고 『제스처 라이프』(1999)의 작중 서술자를 남성으로 변경했다고 한 바 있다. 즉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이 생산한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증언 이후’라는 역사적 사건과 맞닿아 있다.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일제 식민주의의 피해라는 역사와 접속함으로써 한국계 미국인의 입장에서 감각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서사화하며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한국어로 번역된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일본군‘위안부’ 문학작품으로서 가장 최근 출판된 것은 『하얀국화』(2018)와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2018)이다. 이들 작품은 미국에서 영어로 간행된 일본군‘위안부’ 문학의 흐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기도 하고,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군‘위안부’ 문학의 흐름 속에서도 다시 한 번 해석될 필요가 있다. 미국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일본군‘위안부’ 소설이 영어로 번역되는 사례도 생겼기 때문이다.¹⁾

번역이 되지 않은 『천황의 선물』을 제외하고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소설들은 한국에 거의 시차없이 번역되었다. 『종군위안부』도 한국에 1997년에 번역되었고, 『제스처 라이프』도 1년 뒤인 2000년에 번역되었다. 2018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하얀국화』 역시 같은 해 번역되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이런 시차가 거의 나지 않는 번역도 일본군‘위안부’ 서사 논의에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 작품이 꼭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이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은 미국 문학의 번역 속도와 거리를 그만큼 당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방적인 미국 문학의 한국어 번역이라는 압도적인 언어와 정치경제적 권력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일본군‘위안부’가 되었던 다른 국적 출신의 피해자와 관련된 소설도 생산되고 있다.²⁾ 따라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계 미

1) Soom Kim, *One Left: A Novel*, trans. Bruce Fulton et al.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2) Andromeda Romano-Lax, *Plum Rains* (New York: Soho Press, 2018).

국민이 생산한 일본군‘위안부’ 문학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다른 일본군‘위안부’문학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2015년 4월 미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라는 내용의 인터뷰³⁾를 한 바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인정이나 사죄 없이 합의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합의를 둘러싸고 영국의 가디언은 “미국과 일본의 승리”라고 하고,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도 “미국에 희소식”이라고 보도하였다.⁴⁾ 미국 주도의 한미일 동맹은 일본군‘위안부’ 여성의 피해를 입막음 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진 것이다.

2016년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의 한일합의에 대해 “정의로운 결과”⁵⁾라고 언급했다. 피해자에게 전혀 가 닿지 않았던 ‘정의로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의 힘의 질서를 확인하는 ‘정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포스트 식민 역사문제를 말끔하게 “합의”하는 것으로 봉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정의’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계 미국인의 일본군‘위안부’ 문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직접 증언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산된 한일의 역사문제, 여성문제를 한국계 미국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한미일 동맹과 북중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사우스 코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한국계 미국인의 위치 속

3) David Ignatius, “Shinzo Abe’s optimistic vision,” *The Washington Post* (March 26, 2015).

4) 『가디언 “위안부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 『한겨레』, 2015. 12. 29.

5) 『[정세현 칼럼] 위안부 문제에 왜 오바마까지 나서나, 『한겨레』, 2016. 1. 10

에서 생산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계 미국인이 생산한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흐름을 이은주는 미국 중심의 냉전적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 서사로 본다.⁶⁾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가 상호 식민지를 인정할 것을 합의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에서부터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피해는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청일전쟁부터 이어져 온 일본군의 군사주의와 결합된 전시성폭력, 식민지 공창제의 확립과, 미국의 필리핀 식민화와 맞물려 들어가는 필리핀에서의 일본인 창부 단속, 일본의 폐창 운동 이후 일본인 성매매업자들의 동아시아로의 이동⁸⁾이라는 흐름 속에서 제국 일본과 제국 미국은 늘 일정한 관계성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제국간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군‘위안부’ 서사와는 결을 달리하며 생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5년 이후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매리 린 브락트의 『하얀국화』를 중심으로 미국의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지를 논해 보려고 한다.

2. 두 세계의 교차적 배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계 미국인이 생산한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관계성, 그리고 냉전적 질서 속에서 형성된 서사적 조건을 반영한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은 작품 내부의 서사

6) Eunjoo Lee, “The Cold War Politics of National Belonging in Korean American Novels of Comfort Women,”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66 (December 2023).

7) Ibid., 32.

8) 송연옥, 『제국의 성관리 정책과 인신매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Ⅱ』, 장수희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2020 참조.

형식에도 그대로 투영되는데, 『하얀국화』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작품이 어떻게 두 개의 시공간을 교차적으로 배열하며, 제국의 폭력과 그 이후의 기억을 병치하는지를 살펴본다.

『하얀국화』에서는 1943년 제주도에서 일본군‘위안부’로 징모된 하나와 2011년 1000회 수요집회에 가는 제주 해녀이자 하나의 동생 아미의 시공간의 서사가 번갈아가며 멀티버스(Multiverse)처럼 서술된다. 이은주는 아미와 하나의 서사가 가정 내부에 제한되는 것과 소설의 병렬적인 구조가 ‘국내봉쇄’라는 미국의 방공외교 정책을 은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⁹⁾ 이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냉전 속에서 열전을 겪었던 한국의 역사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에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의 서사가 고립된 서사의 형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일본군‘위안부’ 서사에서 일본군‘위안부’의 경험이나 증언이 서사화 되는 방식 중 하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현재의 시공간이 분리되어 구성되는 방식이기도 했다. 내화와 외화가 구분되는 방식은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에서도, 싱가포르 일본군‘위안부’ 소설 『How We Disappeared』에서도, 또 한국에서 생산된 다수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일본군‘위안부’ 소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역시 일본군‘위안부’에게 있어 ‘증언 이후’라는 시공간이 일본군‘위안부’가 같이 살고 있는 시공간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증언’해야 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했던 벽장(클로젯) 속을 상정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학순의 첫 증언을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수많은 증언 집회에서 증언을 반복해야 했던 것도, 일본군‘위안부’가 전혀 상정되지 않는 세상에서 일본군‘위안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언제나 상정되는 세계로 바꾸기 위한 계속된 커밍아웃이기도 했던 것이다.

9) Eunjoo Lee, Op. cit., p45.

이혜령은 일본군'위안부'소설 속 여성들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 속 커밍아웃 이야기가 자녀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한다.¹⁰⁾ 따라서 일본군'위안부'였던 어머니 세대가 미국으로 이주한 경험과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 세대의 말하고-듣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커밍아웃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 '민족'과 '민족성'이 '완충제'¹¹⁾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커밍아웃이 '민족됨(nationhood)'의 선언이기도 하다고 논의하였다.¹²⁾ 나아가 그 민족이라는 것이 타인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시간의 문'¹³⁾이었다고 평가한다.

미국 내에서 이주 1세대인 어머니의 증언을 듣고, 민족적 정체성을 획득하여 이주 2세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안정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이민국가인 미국에서 살아갈 2세대 여성이 한국계 미국 이민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다문화 이민국가인 미국의 일원으로서 안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강조되고, 미국과 미국인이 만들어낸 냉전 질서 속에서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이야기는 미국적 내셔널리즘의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 맥락에서 일본군'위안부'는 '조선인'이든 '한국인'이든 모두 '코리안'이 된다. 이은주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 내셔널리즘의 동질화'라고 명명하고 있다.¹⁴⁾ 어떤 민족주의이든 이민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는 미국에서 이민 소수자의 문화로 일괄되어 미국이라는

10)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 일본군'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반교어문연구』 47권, 반교어문학회, 2017.

11) 같은 논문, 265쪽.

12) 같은 논문, 266쪽.

13) 같은 논문, 267쪽.

14) Eunjoo Lee, Op. cit., p34.

국가주의에 복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황금주를 비롯한 한국인 6명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 출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왕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워싱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었다.¹⁵⁾ 일본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주권면제가 쟁점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외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주권면제라는 국제법의 원칙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어떻게 제외되는지를 증명해야하는 것이다.

19세기에 절대적인 규칙이었던 국가[주권-인용자]면제는 더 이상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다.¹⁶⁾ 미국에서의 주권면제를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FSIA(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외국주권면제법)에는 외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주권면제를 포기한 경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상업적 행위가 미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경우 등을 주권면제가 제한되는 경우, 즉 주권면제라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주권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상업적 행위로 미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한다.¹⁷⁾

원고측은 일본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선언한 1945년 포츠담 선언을 명시적 주권면제의 포기라고 간주하고 이를

15) 『미국서 첫 위안부 집단소송』, 『경향신문』, 2000. 9. 19.

16) 심아정,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일다』, 2021. 2. 2. 심아정은 이 글에서 19세기에 국제법상의 절대적 규칙이었던 국가면제가 각국의 국내법원들의 판례를 통해 ‘상대적 국가면제’로 변화해 왔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젠더기반 폭력인 ‘위안부’ 소송이 지난 2021년 1월 8일 국내 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국적을 넘어 “젠더적 관점으로 국가면제의 부당함”(친킨 의견서)이 인정된 선구적 사례로서 평가하고 있다.

17) 오승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2권 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41-142쪽 참조.

주장하였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포츠담 선언이 일본의 주권면제의 포기를 규정하지 않았음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¹⁸⁾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동원이 일본 정부의 상업적 행위로 전쟁 당사국이었던 미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쟁점에서, 원고측은 위안소가 일본 군대의 군포를 받고 영업행위를 한 매춘장소에 다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안소가 당시 미국의 영토였던 괌과 필리핀, 그리고 전후 미국에 귀속된 일본 영토의 일부에 있었고, 이를 미국이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미국에 직접 영향을 준 행위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일본의 위안소 운영이 강제 동원에 의한 것으로 주권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¹⁹⁾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위안소 운영이 일반적 매춘 혹은 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므로 그 행위로 미국이 직접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²⁰⁾

이 판결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들을 일본 정부의 주권적 영향력 아래 있는 존재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미국 역시 전쟁 당사자국이었던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와 식민지인들에 대해 일본 제국 내부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의 강제 동원이 국가의 주권 행위이므로 이를 미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애초에 미국은 제국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를 구별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²¹⁾ 그리하여 식민지 조선의 민

18) 같은 논문, 142쪽.

19) 같은 논문, 142쪽 참조.

20) 양소정,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 Hwang Geum Joo v. Japan 사건을 중심으로」, 『ATE』 Vol.2 No.-,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2012, 69-70쪽 참조.

21) 이 논문에서는 동일한 영어로 번역되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제국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제국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가 역사적 조건과 권력관계에서 근본

족주의는 때로는 제국이었던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구분 없이 비판당하며, 이를 구분할 수 없는 제국 미국에 의해 삭제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일본군‘위안부’ 소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권을 갖고 있는 현재와 주권이 박탈당했던 식민지 시기를 오가며 교차적인 형식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제국적 인식 구조 속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서사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 조건은 작품 속에서 일본 제국의 폭력 뿐 아니라 해방 이후 냉전질서가 만들어낸 또 다른 폭력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어떻게 숨기느지를 살펴보게 한다. 다음 장에서는 『하얀국화』 속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이야기와 제주 4.3 속 여성의 이야기가 어떻게 병치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자.

3. 일본군‘위안부’ 이야기와 4.3 이야기

제주도는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 해방 이후 미군정과 냉전질서, 한국 전쟁을 전후한 국가 폭력이 단절되지 않은 채 섬 전체에 중첩되어 각인된 공간이다. 지금도 자연이 아름다운 세계적인 관광지인가 하면, 한편에서는 전쟁이 가능한 미국의 핵잠수함이 입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²²⁾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하얀국화』의 배경이 되는 1943년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해군부대가 제주도의 알뜨르 항공기지 내의 군사시설을 건설²³⁾하고 있을 때였다. 『하얀국화』의 ‘하나’라는 인물은 1943년 물으로,

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전자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수행하는 제국적 국가주의라면, 후자는 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형성된 저항적 감각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가리킨다.

22) 강동삼, 『美 LA급 핵추진잠수함… 제주해군기지 강정항에 왔다』, 『서울신문』, 2023. 7. 24.

23) 조성윤, 『알뜨르 비행장 ;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제4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2, 412쪽.

그리고 만주의 위안소로 보내졌다. 하나가 동원되는 경로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한반도 내에서 다시 만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처럼 제주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국내동원과 국외 동원이 병행되었던 사실은 이미 연구로 밝혀져 있다.²⁴⁾

1945년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한 결호 작전(決號作戰) 지역에 제주도가 편입되면서 약 7만 8천여 명의 일본군이 급격히 배치되어 주둔하게 된다. 소설 속에서 1943년 하나가 위안소로 보내지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일본군들이 제주도로 몰려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중 자폭용 병기인 신요(震洋)와 함께 배치된 제45신요대(震洋隊) 소속의 요카렌(予科練) 생도들은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용²⁵⁾하였다. 제주도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증언이 나온 적 없기 때문에 제주의 일본군‘위안부’와 위안소 관련 조사는 일본군‘위안부’와 위안소를 목격한 주민들의 구술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²⁶⁾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결호 작전으로 일본 군인들이 제주도에 주둔하기 시작하지만, 미군은 제주가 아닌 오키나와에 상륙했다. 해방 이후 ‘하나’와 ‘아미’의 아버지는 4.3 때 무장대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살해당한다. 『하얀국화』에서 일본군‘위안부’가 된 하나의 서사와 함께 이야기되는 것은 제주 4.3 사건을 겪는 아미의 이야기이다.

일본군‘위안부’ 서사와 제주 4.3 서사가 함께 제시되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흐름 중에서 처음은 아니다. 1970년대 연재되었던 일본군‘위안부’ 서사 『여명의 눈동자』에도 제주 4.3과 성폭력이 함께 그려지고, 1991년 방영된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4.3 사건이 재현된

24) 지영임, 『구술을 통해본 일제하 제주도 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사회와 역사』 Vol.0 No.72, 한국사회사학회, 2006.

25) 조성윤·고성만, 「태평양 전쟁 말기 요카렌(予科練)의 제주도 주둔과 위안소 -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vol., no.6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111쪽.

26) 허호준, 「“일제 말기 제주도에도 ‘위안소’ 있었다”」, 『한겨레』, 2019. 7. 8.

다. 일본군‘위안부’가 징모되어 위안소와 전장을 헤매고, 1945년 해방 이후 삶이 이어지는 서사 속에서 일본군과 공산주의자, 미군과 한국인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일본군‘위안부’였던 여성에 대한 가해자로 등장한다. 이전의 일본군‘위안부’ 서사 속에서 4.3이 일본군‘위안부’가 전쟁 이후에 겪었던 사건으로 서사화 되지만, 『하얀국화』에서는 일본군‘위안부’가 된 하나의 삶과 하나를 기억하며 4.3을 겪게 되는 아미의 삶으로 각각 다른 방향의 삶처럼 서사화 되어 병치된다. 일본군‘위안부’로 징모되었던 여성의 삶과 징모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여성의 삶을 중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군‘위안부’가 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마주하게 되는 폭력의 구조적 유사성을 드러낸다.

일본군‘위안부’가 되지 않았던 아미의 삶을 결정했던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²⁷⁾이다. 미군정 하에서 일어난 이 학살은 대표적인 레드퍼지(Red Purge)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폭력과 성적 학대, 강제결혼이 일어났다. 1943년 하나의 서사가 일본군‘위안부’로 징모되어 위안소에 있다가 몽골로 탈출한 이야기라면, 2011년 아미의 서사는 제주 4.3 이후 경찰과 결혼하여 어머니를 죽인 남편과 평생을 해녀로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이다.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 안전한 동굴을 떠날 용기를 낸 사람은 한 여자를 제외하고 없었다. 여자는 집이 불 탈 때 납치를 당한 딸을 찾으러 동굴을 나섰지만 맥이 풀린 채 잿빛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아무리 구슬려도 여자는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아미는 최악을 상상했

2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23, 536쪽.

다.”²⁸⁾

4.3 당시 여성들은 불법 체포, 감금, 고문, 살인과 성폭력을 망라한 피해를 당했다. 특히 성폭력은 오로지 여성 피해자의 몫이었다는 점에서 4.3은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였다.²⁹⁾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유린과 성폭행으로 빈번하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딸을 찾으러 나간 여자가 본, 혹은 겪은 것은 이미 4.3의 피해 증언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미는 제정신이 아닌 어머니와 함께 굴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경찰을 만나고, 경찰서로 연행된다. 그리고 경찰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 현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

“(중략) 내 말 한 마디면 딸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어. 한 마디라도 더 하면 총살대 앞으로 보내 버리겠어. 서명하라고 해.”³⁰⁾

‘순경 각시’는 제주 4.3 당시 성폭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³¹⁾ 용어이다. 아미는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경찰과 결혼하는데 이 결혼은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선택지이기도 했다. 남편이 된 경찰 현모는 ‘폭도’를 돕는 사람을 찾아내 벌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늘 장모인 아미의 어머니가 폭도를 돕는 조력자라 의심했다. 결국 ‘순경 각시’였던 아미는 살아남고, 어머니는 처형을 당한다.

“(중략) 나 또한 그들처럼 북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몰살한 공산주의자들이 나까지 죽이기 전에 38선을 넘어 왔다는 말이에요. 놈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 모두로부터. 그래서 잃어버린

28) 매리 린 브라트, 『하얀국화』, 이다희 옮김, 문학세계사, 2018, 148쪽.

29) 박상란, 「제주 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 각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5호,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19, 303쪽.

30) 매리 린 브라트, 앞의 책, 158쪽.

31) 박상란, 앞의 논문, 317-318쪽.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당신과 같은 마을 여자와 혼인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에서 빨갱이들을 박멸하기 위해 우리가 자손을 만들어야 합니다.”³²⁾

4.3은 특정 집단의 절멸을 위해 대량 살해를 행하는 범죄 제노사이드이기도 하다. 1945년 8월 이후 3년 동안, 더 나아가 1949년 상반기까지 실질적으로 남한에서의 대부분의 군사행동에 관련한 미국 정부, 미 육군, 미 8군 사령부와 그 휘하부대의 군사적, 법률적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³³⁾ 미군정의 하지 사령관은 4.3 당시 딘 군정 장관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철회시키고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결정³⁴⁾했다.

“‘워싱턴탐’의 윤영일 변호사는 제주 4.3사태가 미 군정(1945~1948) 치하에서 발생했으며 미 군정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한국 군정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면서, ‘하겐스 버먼’과 함께 미국 정부를 소송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³⁵⁾

워싱턴 주 최초의 한국계 변호사 윤영일은 1999년에는 4.3 피해자 유족들과 미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제주 4.3이 한국 내부의 문제일뿐 아니라 미군정과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문제로 해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⁶⁾

『하얀국화』 속 아미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현모와의 결혼을 하게되는 장면은, 4.3 당시 여성들이 경험한 성폭력이 단지 개인에 대한

32) 매리 린 브라트, 앞의 책, 159-160쪽.

33) 허상수, 『제주4.3항쟁의 해결은 미국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에 달려 있다』, 『4.3과 역사』 제6호, 제주4.3연구소, 2006, 93쪽.

34) 장준갑, 『미군정의 제주4.3사건에 대한 대응: 폭력과 학살의 전주곡』, 『전북사학』 제31호, 전북사학회, 2007, 224쪽.

35) 한우성, 『끝나지 않은 전쟁: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 『당대비평』 13호, 생각의나무, 2000, 130쪽.

36) 『제주4.3 피해자 유족, 미국 상대 집단소송』, 『연합뉴스』, 1999. 11. 21.

폭력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공권력이 여성의 몸을 통해 ‘폭도’와 ‘국가’ 사이의 경계를 관리하고자 했던 통치 전략의 일부이기도 했다. ‘순경 각시’는 생존을 위해 가해자와 혼인 관계를 맺어야 했던 여성들의 역설적 위치를 압축하는 명명으로, 아미의 삶은 1943년 하나의 징모와 마찬가지로 국가 폭력이 여성의 몸을 관통해 수행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서사가 된다. 그럼에도 작품은 이 과정에서 작동한 미군정의 책임을 전면으로 호출하지 않음으로써, 폭력의 구조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한 채 개인의 도덕적 죄책감과 가족사의 비극으로 수렴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

소설 속 아미의 서사에서는 미군정의 개입과 책임이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라진 채, 대신 이를 감당하는 가족 서사만이 전면화된다. 2011년의 ‘미국’으로 상징되는 인물은 1000번째 수요집회를 함께 참석하는 딸 윤희의 미국인 친구 레인이다. 이화여대 인류학과 미국인 교수인 레인은 수요 집회에서 사용할 피켓을 만들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아미를 돕고, 아미의 비밀을 가족들과 함께 듣는다.

“소녀상을 다시 봐야겠어요. 애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혹시 레인은 날 이해해 줄지도 모르겠어요.”³⁷⁾

1000회 수요집회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보고 아미가 쓰러졌을 때 아미는 자신의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미국인인 레인은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 즈음 되면 이 소설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위안부’라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해방 이후 미군이 남쪽을 점령하게 되면서 미군‘위안부’라는 형태로 이어졌다. 그리고 미군정 하에서 일어난 4.3에 대한 대응은 정부 수립으로 정권을 이어받은 이승만 정권의 학살로 이어졌다.³⁸⁾ 그러나

37) 매리 린 브라트, 앞의 책, 265쪽.

38) 제주 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 김동춘은 “1948년 후반 정부 수립 후 제주 4.3사건 진압군의 무리한 토벌이나 여순사건 진압도 형식적으로는 한국군

소설에서는 폭력을 휘둘렀던 미국과 미군은 깨끗이 사라지고, 점잖고 친절
 절한 엘리트 미국 교수 레인만이 미국을 상징하며 남아 있다.

일본 대사관 앞의 닫힌 창문과 문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는 미국인 레
 인은 일본 국가의 부인과 침묵을 상징하는 장소 앞에서, 온전히 호출되
 지 못한 또 다른 가해 국가의 책임, 곧 미국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장치
 로도 읽힌다. 『하얀국화』는 일본군‘위안부’와 4.3이라는 두 폭력의 장을
 병치하면서도, 미군정과 냉전 체제 속에서 행사된 미국의 구조적 폭력을
 서사 바깥으로 밀어내고, 대신 레인이라는 ‘선량한 미국인’을 전면에 내
 세우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된 이 한국계 미국인의 일본군‘위안
 부’ 서사가 지니는 혐의는 바로 여기-제국 미국의 역할을 지워낸 자리
 에서, 일본의 책임을 비판하는 정의의 언어가 다시 한 번 미국 중심의
 냉전 질서를 비가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책임의 배치는 소설 속에서 하나와 아미의 삶이 각각 서술되
 는 방식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다음 장에서는 일본군‘위안부’가 된 하나
 의 이야기와 ‘위안부’가 되지 않은 아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짝을 이루며
 기억과 죄책감, 생존과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살
 펴본다.

4. 일본군‘위안부’가 된/되지 않은 이야기

매리 린 브락트의 『하얀국화』는 ‘하나’와 ‘아미’라는 자매의 이야기이

에게 책임이 돌려질 수 있으나 당시 한국군은 사실상 미군사고문단의 지휘를
 받고 있었으므로 미군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미
 국이 1948년 제주 4.3사건 초기에 초토화 작전을 중용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
 면, 미국은 자신들에게 공격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 극우청
 년단체들이 죄익을 ‘청소’하는 작업을 묵인 혹은 지원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344-345쪽).

다. 각 장의 제목도 '하나/ 1943년 여름, 제주도', '아미/ 2011년 12월, 제주도'라는 형식으로 하나의 시공간과 아미의 시공간을 교차하며 서술된다. 소설은 하나의 시공간이 13번 반복되고, 교차적으로 아미의 시공간이 11번, 아미의 시공간에서 이어진 아미의 딸 '윤희'의 시공간이 1번 교차된다. 첫 번째 하나의 시공간인 1943년 여름에는 동생인 아미와 함께이다. 어머니를 따라 해녀의 일을 배우고 바다에 있는 동안 어린 아미는 모래밭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다가오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아미를 지키기 위해 하나는 두 명의 군인에게 연행되어 간다. 군복을 입은 두 군인이 하나의 양 팔을 잡아 끌고 갈 때 경직되어 힘이 빠져 버린 두 다리는 축늘어졌다. 이후 하나는 경찰서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여성애국병참부대라는 곳으로 보내진다. 하나는 '검탈'이라는 말을 이미 끌려간 소녀들의 소문을 통해 배운 참이었는데, 하나처럼 모아진 여성들은 배에 실려 물으로, 기차를 타고 만주로 보내진다. '이동'은 이미 '강제 수용'이었고, '이동' 중에도 만주의 위안소에서처럼 강간은 계속되었다. 하나가 위안소에서 처음 듣게 된 소리는 저음의 곡성, 소리없는 울음이었다. 위안소에서 '사쿠라'라는 꽃이름으로 불리게 된 하나는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동료들로부터 배운다. 아편을 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 위생을 위해 꼼꼼히 씻는 것, 서로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위안소 내에서 여성들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묘사는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단순한 '이동'이나 '전시 동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제국이 여성의 몸을 전쟁 수행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수용체계였음을 드러낸다. 이동의 모든 순간이 곧 폭력의 현장이며, 위안소 내부에서조차 여성들은 국가와 군의 폭력적 통제 체계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동시에 그 수용의 공간 내부에서 여성들이 서로를 돌보고, 몸의 감각을 보존하며, 폭력의 일상을 견디기 위한 지식을 서로 전수하는 방식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이는 국가의 통제 아래에서도 여성들이 최소한의 존엄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난 관계와 실천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즉 ‘사쿠라’라는 꽃 이름이 부여된 비인간화의 공간 속에서도, 여성들은 자신을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다양한 생존 전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를 연행하여 위안소로 가게 만든 ‘모리모토’는 위안소 하나의 방으로 자주 찾아왔다. 그는 위안소에 감금되어 강간당하고 있는 하나를 연인처럼 대하지만, 그것은 가해자의 기만일 뿐이었다. 전쟁의 막바지 어느날 모리모토가 군대를 같이 도망치자고 하는데, 같이 도망치기로 한 날 하나는 모리모토에게서도 벗어나 혼자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결국 모리모토에게 붙잡힌다. 위안소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일본군 모리모토에게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모리모토는 하나를 몽골의 한 유목민 가족에게 맡겨두는데, 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나는 위안소에서 당했던 일을 이 곳에서도 당할 것 같아 두려워한다. 그러나 유목민 가족에게 모리모토는 하나를 고아라고 소개했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아편 밀매로 돈을 벌려는 모리모토가 돌아올 때까지 유목민 가족과 안전하게 지낸다. 모리모토가 돌아왔을 때 모리모토로부터 다시 도망친 하나는 소련 군인에게 포로로 붙잡힌다. 모리모토도 소련 군인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는데, 그 곳에서 모리모토는 하나를 일본군의 매춘부라고 소개한다.

하나의 신분은 일본 군인 모리모토가 이름 붙이는 대로 위안부가 되었다가, 고아가 되었다가, 매춘부가 되기도 했다. 위안소에서 하나의 이름이 아닌 꽃의 이름이 붙었던 것처럼 하나의 신분도 일본군이 붙이는 이름에 따라 달라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이름을 붙이든 전쟁 중 여성들에게 일본 군인들이 했던 성폭력의 본질이 달라질 리는 없었다.

소련군의 포로 중에는 일본인에게 인신매매 당한 두 자매가 있었는데 셋은 마치 세상을 살았던 기록을 남기듯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그리고 헤어질 때, 사진을 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재현된다.

“나를 잊지마”³⁹⁾

사진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이후의 세계에서 생존자와 증언자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나를 잊지마”라는 요구는 국가 간 조약이나 배상 합의가 종결해 버린 전쟁의 시간을 다시 열어젖히려는 요청이며, 기억의 의무를 타인에게 넘기는 서사적 행위이다. 훗날 하나의 사진이 소녀상의 모티브가 되고, 다시 윤희를 통해 현재의 제주 바다로 이어지는 구조는, 전쟁 폭력이 개인의 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야기와 이미지의 전승을 통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와 모리모토를 붙잡은 소련 군인도 하나를 겁탈하려 했고, 하나는 군인의 총을 빼앗아 목숨을 걸고 저항하다 오히려 제압당해 총에 맞는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묻는 병사에게 하나는 말한다.

“난 단 한 번도 매춘부였던 적이 없어.”⁴⁰⁾

“난 해녀야.”

“우리 엄마가 그렇고 엄마의 엄마가 그랬고 내 동생이 그렇듯. 그리고 언젠가 내 동생의 딸들도 해녀가 될 거야. 난 언제나 바다의 여자였어. 너도, 그 어떤 남자도 나를 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 수 없어.”⁴¹⁾

하나의 “난 단 한 번도 매춘부였던 적이 없어”라는 선언은 단순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을 넘어, 전쟁 이후 위안소를 ‘상업적 행위’로, 위안부를 ‘매춘부’로 재범주화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국가와 제국의 언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발화이다. 이는 곧, 책임을 피해자의 행위로 돌리려는 그 재범주화의 시도 자체가 국가와 제국의 책임을 다시 드러내는 역설적 순간이기도 하다.⁴²⁾

39) 매리 린 브락트, 앞의 책, 393쪽.

40) 같은 책, 398쪽.

41) 같은 책, 398쪽.

일본군‘위안부’가 상업적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상업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하나가 스스로를 “해녀”라고 재규정하는 행위는, 여성의 몸을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하는 제국의 경제·법적 언어에 맞서,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의 노동과 바다라는 다른 세계에 기반한 존재 방식을 되찾는 몸짓이라 할 수 있다. 이 장면은 훗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법적·외교적 논의에서 여성의 피해를 다시금 금전화하고 계산 가능한 손해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들과도 긴장 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⁴³⁾

일본 군대의 위안소에 있을 때도, 모리모토가 제멋대로 몽골의 유목민 가족에게 하나를 맡겼을 때도 하나는 동생 아미를 생각하며 죽지 않고 살아낸다. 위안소로 잡혀 오기 전의 세계에서 하나는 ‘더이상 소식을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는 위안소로 잡혀 오기 전의 세계를 잊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쟁에서 군인들이 무엇이라 부르든 제주도의 해녀로서 살아남았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가 놓여있는 전쟁터를 개념적으로 벗어나는 전략이자 생존의 전략이었다. 소설 속 소련 군인의 총에 죽을 뻔한 하나를 살려낸 것은 유목민 가족이었다. 하나는 유목민 가족과 몽골에

42) 로라 강은 그의 저서 『*Traffic in Asian Women*』에서 무라야마 담화가 ‘세계’를 소환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개인적이고 세계적 여성 피해 담론으로 재배치 함으로써 일본과 아시아 내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공론화 해온 노력을 소거 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국 일본과의 끊임없는 담론 재배치와 기억 투쟁의 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Laura Hyun Yi Kang, *Traffic in Asian Women*, Duke University Press, 2020, 191).

43) 로라 강은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여성에 대한 정의를 계산하고 금전화(monetization)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ibid., p.193) 한편 요네야마 리사는 “아시아여성기금이 냉전 구도의 한계 속에서 시도된 전후 보상 노력인 한, 그 기금의 논리에 대한 거부는 전후의 아시아와 태평양을 형성한 국가 대 국가 배상 합의에 대한 철두철미한 쇄신 없이 정의는 불가능하다는 표시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한 바 있다.(요네야마 리사, 『냉전의 폐허』, 김려실 옮김, 부산대학교출판부, 2023, 206쪽).

남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이동중 만난 바다같은 호수로 뛰어들어 힘껏 자맥질을 한다.

한편, 하나가 끌려가는 것으로 구한 동생 아미는 평생 하나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식들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던 아미는 2011년 1000회 수요집회에서 하나를 꼭 닮은 소녀상을 보고 자식들에게 언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날 바위 아래 숨어서 그놈들을 나 대신 언니를 데려가게 내버려 뒀어. 언니는 나를 살리려고 자길 희생한 거야. 난 지켜 보기만 했고 그 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지. 누구한테도, 내가 겁쟁이였던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⁴⁴⁾

일본군‘위안부’ 서사라는 것은 일본군‘위안부’가 되어 전쟁터로 보내진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전쟁터에 가지 않고 결혼하거나 평생 일본군‘위안부’였던 누군가를 기억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일본군‘위안부’가 된 하나의 이야기와 제주도에 남아 해녀가 되어 평생을 살아온 아미의 이야기가 짝을 이루어 이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쟁터에 가지 않은 아미가 겪은 일은 해방이 되어 일본군이 물러가고 4.3이 시작되었을 때 무장대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경찰에게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아미는 이북 출신의 경찰과 강제결혼을 한다. 남편이 된 경찰은 장모인 아미의 어머니를 빨갱이로 의심했는데, 강제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날 실종된 어머니가 처형된 것을 몇 년 뒤에 알게 되었다. 아미가 자식을 낳고 살게될 경찰 남편이 정치범 목록에 어머니를 올려 처형당하게 한 원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 한평생을 살았다.

소설에서 아미의 시간은 2011년을 중심으로 서술되는데 3년째 서울의

44) 매리 린 브락트, 앞의 책, 289쪽.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다. 4.3 추념식에서 하얀국화로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장면이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하나를 위해 어머니가 했던 일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왜 수요집회에 참석하는지 궁금해하는 딸 윤희의 물음에, 아미는 하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다가 1000회 집회에서 제막된 소녀상을 보고 하나 언니에 대해 들려준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존재’를 기억하는 것, ‘존재’를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한번도 언니를 잊지 않았어. 긴 세월 동안 잊은 척했지만 잊은 적 없었다.”⁴⁵⁾

하나 언니를 꼭 닮은 소녀상을 만나고 나서 아미는 어머니의 학살에 관계한 남편의 일도, 일본군에게 끌려간 하나의 일도 모두 자식들에게 전하고 죽는다. 아미의 딸 윤희는 소녀상 작가들과 연락을 하다가 소녀상이 경기도 나눔의 집에 남아 있던 하나의 사진이 모티브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된다. 하나가 총에 맞기 전 같이 있던 두 자매에게 “나를 잊지마”⁴⁶⁾라며 전했던 하나의 그 사진이었다.

윤희는 평생 해녀로 살아온 아미를 기억하며 제주도 바다를 헤엄치는 것으로 아미의 시간을 이어간다. 소설은 딱 한번 등장하며 하나의 서사와 교차되는 ‘윤희’의 서사로 끝나지는 않는다. 소설의 마지막 장은 ‘하나/ 1943년 겨울, 몽골’이다. 몽골에 남기로 작정한 하나가 바다같은 호수 속을 헤엄치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난다. 아미의 시간은 흘러 딸 윤희로 이어졌지만, 하나의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1943년 겨울, 몽골에 멈춘다. 하나의 시간은 아마도 전쟁 성폭력의 트라우마 시간으로 일생을 통해 몇 번이나 1943년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45) 같은 책, 404쪽.

46) 같은 책, 393쪽.

5. 지워지는 책임의 서사

하나는 일본군 위안소를 탈출하여 몽골에서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몽골 사람들로부터 구출되어 함께 살게 되고, 제주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미는 2011년 1000회 수요집회에 제막된 소녀상을 돌아온 언니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미가 평생을 보지 못했던 하나가 소녀상이라는 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몽골에 남을 것을 결심하며 물 속을 헤엄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하나의 시공간 속에서 아직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아미의 시공간 속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소설이 나온 2018년은 전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한창일 때였고, 시리아 공습,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계속 되고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공간의 단절과 폭력과 전쟁 서사의 병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소설 속 아미의 해녀 친구 진희가 하고 있다.

“우리가 물질하는 걸 신기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 그럼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소문내고 뭘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겠지.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영영 사라질 리 없지 않겠냐.”⁴⁷⁾

해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해녀를 ‘구경’한다고 아미가 불만을 말하자, 해녀에 대해 말해주고 누군가 이야기해 주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라고 한다. 서사의 힘은 여기에 있다. 하나도 소련군에게 잡혀 포로수용소에서 만난 두 소녀에게 자기 이야기를 남긴다.

“내 이름은 하나야”

하나는 맨 처음부터 이야기한다. 해녀로서의 삶에 대해, 고향 바다에서 헤엄을 치다가 동생이 있는 쪽으로 향하던 일본 군인을 본 일에 대

47) 같은 책, 87쪽.

해 (중략) 두 조선 소녀도 하나에게 저들의 이야기를 한다. (중략) 셋은 손을 꼭 잡고 비좁은 공간 속에서 작은 원을 만들었다. 얼굴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기 위해 서로를 찬찬히 살피는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⁴⁸⁾

포로수용소 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세 사람은 또 다른 시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전쟁 속에서 세명이 말을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이 소용소라는 공간과 병치된다. 거대한 서사 속에서 소수자들이 만들어 내는 세계의 병치와 병존이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멀티버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어린 해녀였던 하나와 할머니가 된 아미가 늘 돌아가고 싶어하는 곳은 육지에 있는 ‘집’이 아니었다. 육지와 경계를 짓고, 흘러다닐 수 있으며, 깊이를 가진 곳, 늘 자신들을 받아주던 곳이었다. 그곳은 육지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곳이기도 했고, 육지의 법이 곧바로 적용될 수 없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아미의 서사에서는 육지에서의 이야기가 거의 없다. 해녀 일을 하여 딸을 대학에 보내고, 일본군‘위안부’의 해방 이후 서사에 자주 등장하는 미군에 관한 이야기도 없다. 아미는 2011년에 죽고 2012년 2월에 딸인 윤희가 제주도에서 해녀들과 함께 바다를 헤엄치는 장면이 윤희 이야기의 마지막이다. 이 바다에 2012년 구렁비 바위를 폭파하고 미군의 군함이 들어올 수 있는 해군기지가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국계 미국인의 소설 속에서 사라진 미군은 현실 속에서 군함과 함께 제주도에 나타났다.

작가 매리 린 브락트는 “결국 나는 본격적으로 ‘위안부’ 여성에 대하여, 그들의 이야기와 고통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강간이라는 말을 듣고 섹스를 떠올리는 사람들에, ‘위안부’ 여성을 듣고 창녀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다.⁴⁹⁾”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법정에서

48) 같은 책, 392쪽.

제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 소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와 위안소가 상업적 행위로서 미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논해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군‘위안부’라는 제도가 이후 어떠한 프레임으로 호명되든, 그것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한국사를 조사하는 동안 제주 4.3사건과 뒤따른 학살에 대한 진상을 알게 되었다. 해녀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저질러진 이 잔학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⁵⁰⁾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4.3의 학살이 가능하도록 한 배경인 미군정의 책임은 서사 속에서 어디론가 사라져 가시화되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문학이 생산되는 일반화된 토양 속에서 한국계 미국문학은 한국사를 다루고, 식민지 시기 한국의 민족적 피해를, 젠더적 피해를 다룬다. 그리고 시나브로 한국계 미국문학 속에서 미국의 책임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바로 그 책임을 한국계 미국문학이야말로 물어야 할 것이다.

49) 같은 책, 7쪽.

50) 같은 책, 7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매리 린 브락트, 『하얀국화』, 이다희 옮김, 문학세계사, 2018.

2. 논문 및 단행본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요네야마 리사, 『냉전의 폐허』, 김려실 옮김, 부산대학교출판부, 2023.

송연옥, 「제국의 성관리 정책과 인신매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II』, 장수희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2020, 16-57쪽.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 일본군‘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반교어문연구』 47권, 반교어문학회, 2017, 247-283쪽.

오승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2권 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25-150쪽.

양소정,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 Hwang Geum Joo v. Japan 사건을 중심으로」, 『ATE』 Vol.2 No.-,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2012, 79-108쪽.

조성운·고성만, 「태평양 전쟁 말기 요카렌(予科練)의 제주도 주둔과 위안소-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vol., no.6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95-122쪽.

조성운, 「알뜨르 비행장 ;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제4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2, 395-438쪽.

박상란, 「제주 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 각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5호,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19, 301-333쪽.

지영임, 「구술을 통해본 일제하 제주도 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사

- 회와 역사』 Vol.0 No.72, 한국사회사학회, 2006, 73-102쪽.
- 허상수, 「제주4.3항쟁의 해결은 미국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에 달려 있다」, 『4.3과 역사』 제6호, 제주4.3연구소, 2006, 90-95쪽.
- 한우성, 「끝나지 않은 전쟁: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 『당대비평』 13호, 생각의나무, 2000.
- 장준갑, 「미군정의 제주4.3사건에 대한 대응: 폭력과 학살의 전주곡」, 『전북사학』 제31호, 전북사학회, 2007, 205-225쪽.
- Laura Hyun Yi Kang, *Traffic in Asian Women* (Duke University Press, 2020).
- Soom Kim, *One Left: A Novel*, trans. Bruce Fulton et al.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 Andromeda Romano-Lax, *Plum Rains* (New York: Soho Press, 2018).
- Eunjoo Lee, “The Cold War Politics of National Belonging in Korean American Novels of Comfort Women,”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66 (December 2023).

3. 인터넷 자료

- 「가디언 “위안부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 『한겨레』, 2015. 12. 29.
- 「[정세현 칼럼] 위안부 문제에 왜 오바마까지 나서나」, 『한겨레』, 2016. 1. 10.
- 「미국서 첫 위안부 집단소송」, 『경향신문』, 2000. 9. 19.
- 강동삼, 「美 LA급 핵추진잠수함… 제주해군기지 강정항에 왔다」, 『서울신문』, 2023. 7. 24.
- 허호준, 「“일제 말기 제주도에도 ‘위안소’ 있었다”」, 『한겨레』, 2019. 7. 8.
- 「제주4.3 피해자 유족, 미국 상대 집단소송」, 『연합뉴스』, 1999. 11. 21.
- 심아정,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일다』, 2021. 2. 2.

David Ignatius, "Shinzo Abe's optimistic vision," The Washington Post (March 26, 2015).

<Abstract>

Literatur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Its Intersection with Korean
American Literature:
Focusing on *White Chrysanthemum*

Jang, Soo-He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s in Korean American literature, focusing on Mary Lynn Bracht’s *White Chrysanthemum*. Chapter 1 offers an overview of Korean American “comfort women” narratives and shows that they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historical event of the “post-testimony” era. This is because, by engaging with the histories of “comfort women” victimization and Japanese colonial violence, Korean American writers began to narrativize and actively interpret the “comfort women” issue as it is sensed and experienced from a Korean American standpoint. Chapter 2 discusses the contexts in which this cross-cutting narrative form emerged. By examining the key legal issues at stake in the comfort women lawsuit filed in the United States, it highlights the effects and implications produced by such an intersecting formal structure. Chapter 3 analyzes how *White Chrysanthemum* represents the “comfort women” story alongside the temporally subsequent post-liberation history of the April 3 Jeju

* Dong-a University

Incident (4.3), and argues that the novel obscures U.S. responsibility within its narrative. Chapter 4 explores how the stories of women who were taken to the battlefield as “comfort women” are juxtaposed with the stories of women who witnessed that violence and remained behind. Through these analyses, this study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Korean American literature—produced within the broader terrain of U.S. literary production—addressing Korean history, as well as the ethnic-national and gendered harms of the colonial period. At the same time, it argues that such narratives can function to narratively conceal U.S. responsibility within modern Korean history, and it is in this critical intervention that the study finds its contribution.

Key Word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Jeju 4.3 Uprising, “Comfort Women” Narratives, *White Chrysanthemum*, Korean American Literature, Intersecting Narrative Structures

■ 논문접수 : 2025년 11월 30일

■ 심사완료 : 2025년 12월 16일

■ 게재확정 : 2024년 12월 16일